

강원도정 소식

“소득 2배, 행복 2배 강원도”

도 종합계획(2011-2020)안 공청회 개최

강원도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인 「강원도종합계획(2011-2020)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강원발전연구원 5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강원도종합계획(2011-2020)」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강원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00년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수립됐고, 2008년 1차 수정된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강원도종합계획(2011-2020)」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확정 및 국토해양부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3.30)」에 따라 4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초 및 국가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관성 확보를 유지하는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확충 내용을 조정·반영했다.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 반듯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해 인구 200만명, 1인당 GRDP 3만불(3,300만원)을 계획도전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전국 비중 '4% 인구 4% 경제, 입체적 공간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삶터 기반' 조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8개 부문별 전략과제로 (1)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혁신기반화 (2) 고속물류·교통망 구축 (3) 네트워크형 공간경쟁력 제고 (4)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융복합·신산업화 (5) 녹색성장의 기반, 생명 다양성 환경 조성 (6) 고품격 생활기반, 스마트 문화삶터 조성 (7) 건강100세 기반, 고령화 대응사회 형성 (8) 재난 재해에 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간성~대대리 차량통제

구 황실사우나 뒤 교차로~대대리 교차로 14일~12월 30일...4차선 확포장공사 위해

전차량 간성시까지 통과

국도7호선 간성~현내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 간성을 상리교차로 신설공사로 인해 11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간성 교차로(구 황실사우나 뒤편)~대대리 북천 교차로간 1,600m에 대한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이번 교통통제는 상리교차로의 신속한 공사를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간성에서 거진을 오가는 모든 차량은 간성시 가지를 통과해야만 한다.

고성군은 이 기간 동안 시행중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해 통제 기간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는 간성을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단속

고성군선관위, 이달말까지 사전예고... 12월2~11일 단속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성욱)는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정치인의 축의금 및 부의금 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 입후보 예정자와 정치인 등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경조사 장소를 방문해 축의금 및 부의금품 제공 등 의례적 행위를 방제한 기 부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이달 말까지

를 특별단속 사전예고기간으로 정해 정치인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단속기간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전과기록 조회 전국 경찰서로 변경

고성군선관위, 군의원 대상 개정선거법 설명회 가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5시 고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5시 고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후보자등록기간이 국회의원선거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으로 조정됐다고 했다.

또 전과기록 조회를 현행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하도록 한 것을 전국 경찰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여러 번에 걸쳐 발송할 수도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임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제공을 금지했다고 했다. 그동안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기간 개시

일전까지도 수당과 실비를 지급했으나, 이 기간 동안에는 예비후보자 본인의 선거운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개정 선거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부행위와 재외선거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군의원들이 출선수범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군수 관사 주민친화형 쉼터로

매각하지 않고 민원인·지역주민에게 개방

고성군은 지난 1984년 건축된 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수 관사를 철거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갔으며, 올해내로 야외용 의자와 운동기구 등을 갖춘 주민친화형 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홍보광장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홍보·교육의 장

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냉장고,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군수 관사에 있던 집기 등을 독거노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노후된 관사를 매각하기 보다는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및 지역주민에게 쉬어가는 공간이자 신재생에너지 교육의 산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